

5 >> 4% 정원 감축안, 구성원논의 언제쯤?



8 >> 단행본 대여 감소추세 속 '전자도서관'



학사다이어리 -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면제 신청

- 신청대상: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대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자
- 신청기간: 10.13(월) ~ 10.17(금)
※면제서류 접수기간은 단과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과목이수만으로 면제가 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 제출서류: 졸업능력인증제도 면제신청서 1부 / 자격증 또는 증빙서류 원본과 사본 1부

'교육·재정' 하락 지속 세부지표 절반 하락

(32개 중 16개)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교육여건 및 재정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우리학교의 종합순위가 한 계단 상승해 공동 9위를 기록했지만, 평가 영역 4개 부문의 점수는 모두 하락했다. 종합점수 기준으로는 2013년 208점에서 올해 200점으로 하락했다.(중앙일보 대학평가 홈페이지 공식 기준) 세부지표 순위로는 전체 32개 중 절반인 16개가 하락했고, 10개 유지, 상승한 지표는 5개에 그쳤다. 세부지표로만 따지면 몇몇은 종합순위 상승이다.

평가영역 별로 보면,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의 점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년도 56.4점에서 4.5점 하락한 51.9점을 기록했다. 순위 역시 한 계단 하락한 18위였다. 지난 해부터 불거진 ‘재정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부문 내 세부지표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입 중 납입금 비중’,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이다. 두 지표는 지난 해에도 40위권 밖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40위 내로 진입하지 못했다.

세입 중 납입금 비중에서 우리대학은 58.6%로 2013년 59.4%에서 0.8%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금 비중은 낮을수록 등록금 의존율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 대학평가 상위 10개 대학(우리대학 포함) 중 특수목적 대학인 포스텍과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8개 대학의 평균 비중인 46.9%에 비해서는 10% 포인트 이상 높다.

교육비 지급률의 경우도 우리학교는 187%로(이 수치가 높을수록 대학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것으로 긍정적이다.) 2013년 184%에서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앞서 비교한 상위 8개 대학 평균 교육비 지급률 265%와 비교하면 아직도 80% 포인트 가량의 격차가 있다. 재정운영에서 등록금의존율은 높는데 비해 대학의 교육 투자 정도는 낮은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등록금수입 외 수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학교의 재정운영에서 성과를 거둬, 교육투자를 높이는 선순환을 그려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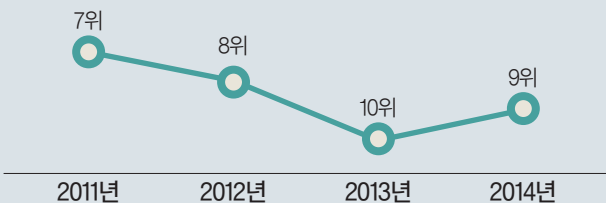
	납입금비중 (%)	교육비지급률 (%)
성균관대	47.7	225
고려대	50.4	213
서울대	23.2	586
연세대	35.5	292
한양대	61.5	199
중앙대	47.5	213
서강대	51.2	210
경희대	58.6	187
평균	46.9	265.6

이런 상황에서 재정수익의 다변화의 주요 과제인 ‘세입 중 기부금 비중’의 경우 순위는 5계단 상승한 30위였지만, 정작 지난해보다 비율은 0.1%pt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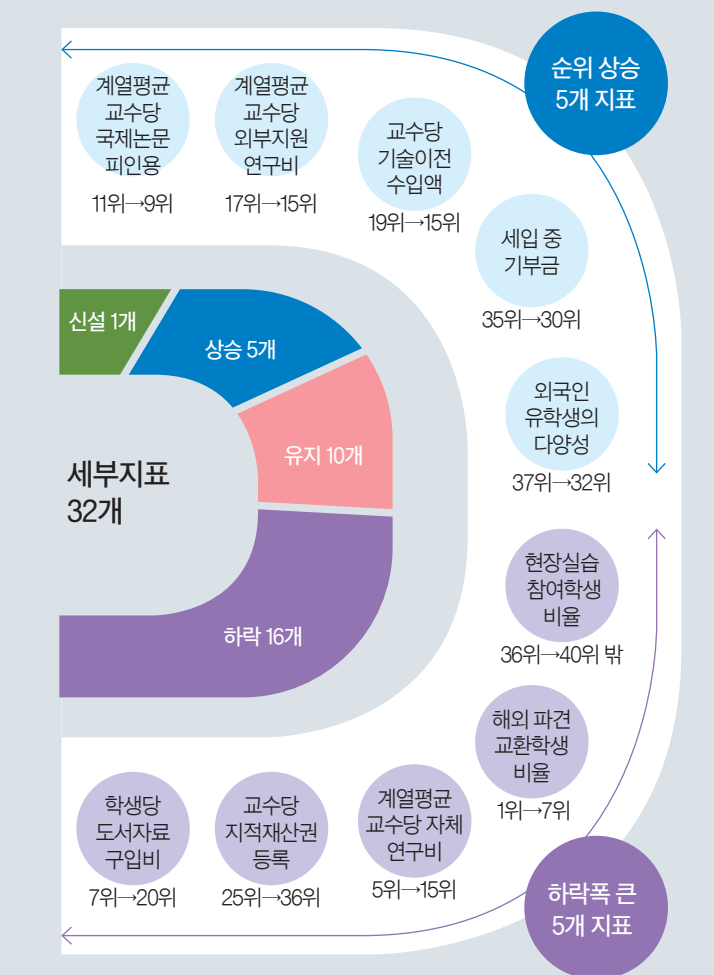
한편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는 지난해 7위에서 올해 20위로 13계단 하락했다. 지난해 20만 2,857원이던 학생당 도서자료구입비가, 올해 15만 1,873원으로 약 5만 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역시 지난해 36위에서 올해는 40위 밖으로 밀려났고, 중도포기를 역시 4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4·5면)

▶5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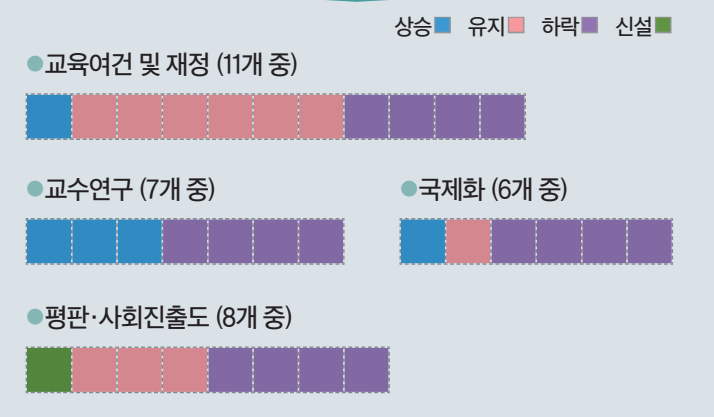
순위 ‘한’ 계단 상승?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32개 지표 중 16개 지표 하락



부문별 세부지표 등락 추이



▶7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대학-동대문구청 관계 이상없나
유덕열 동대문구 구청장



“함께 사는 공동체, 전체 의견 수렴 필수”

정용재 기자 jyae91@khu.ac.kr
권오은 기자

대학과 지역사회는 ‘공생’의 관계다. 당장 대학의 존재만으로도 그 지역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지역 사회의 안전이나 교통 등에 대한 정책은 대학 구성원에게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캠퍼스의 ‘공공기숙사’ 문제는, 그동안 긴밀했던 학교와 동대문구 간의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공공기숙사를 중심으로 우리학교와 동대문구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고자 지난 8일 동대문구청 유덕열 구청장을 만났다.

유 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동체’와 ‘상생’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관계없이 학교가 생활할 수 없다. 또한 반대로 학교가 없다면 주민들의 생활도 지금과 같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숙사를 두고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원 역시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유 구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와 주민 모두 중요한 구성원이다. 어느 한 쪽도 버리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민원조정협의체를 통해 협의의 중인 만큼,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유 구청장과 일문일답.

-경희대학교 공공기숙사 착공의 건축허가가 구청에서 반려됐다. 이에 대해 기숙사 신축을 바라는 학생들 반감도 커지고 있다.

A. 경희대학교 기숙사 건축허가

는 지난 23일자로 동대문구에 처음 접수됐다. 건축허가 시 필요한 요건(에너지절약계획서 미제출)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제시된 조건(친환경 주차장 설치 관련 전기충전기 인프라 구축, 빗물저류조 규모, 면적 상이 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됐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민 민원 때문만은 아니다. 지방에서 온 학생이나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해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기숙사를 짓게 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현재 학교 측과 주민들로 구성된 민원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조만간 상생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착한자취방과의 연계 등도 제안했으나, 계속해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구청에서 양측의 협력을 이워나갈 방안이 있나?

A. 주민이 운영하는 착한 자취방과의 연계 방안은 필요한 자료와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학교 측에 전달하여 홍보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원만한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더라도 서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한걸음씩 양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면으로 이어짐

노예의 도덕 혹은 주인의 도덕 : 니체 《도덕의 계보》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

양대중 원광대 마을인문학 HK연구교수

프리드리히 니체가 1887년에 저술한 《도덕의 계보》는 유럽의 철학과 사회가 삶에 반하는 유악한 도덕에 의해 각인되어 있음을 서술한 책이다.

도덕의 환상을 깨려는 니체의 전략은 주어진 것으로 당연시 되어온 가치들의 가치를 묻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던져져야 할 질문들이 바로 계보학적, 발생학적 질문들이다. 이

질문들을 통해 그가 밝히려는 것은 도덕적 가치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해온 조건과 상황에 대한 지식이다. 이 계보학적 질문의 기저



《도덕의 계보》는 유럽의 철학과 사회가 삶에 반하는 유악한 도덕에 의해 각인되어 있음을 서술한 책이다.

에는 이렇게 생성된 도덕적 가치들이 삶의 퇴락의 징후인지, 충만함과 긍정의 징후인지, 그리고 이 가치들이 인간 속에 잠재한 가능성을 촉진시켜 가장 강력하고 탁월한 유형의 인간을 달성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을 축소시켜 왜소하고 유약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물음이 깔려있다.

이러한 시선의 변화, 즉 “새로운 물음과 새로운 눈을 가지고 오래된, 관독하기 어려운 인간도덕의 과거사라는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니체가 말하는 도덕과 가치의 자연 발생사에 대한 탐구이다.

《도덕의 계보》는 세 편의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에는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죄’, ‘양심의 가책’〉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 〈금욕주의적 이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이 달려있다. 니체는 이 세 편의 연관된 논문을 각각 기독교의 심리학, 양심의 심리학, 성직자의 심리학이라 명명하고 있다. 세 논문 모두 살피면 좋겠지만, 지면관계상 첫 번째 논문인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중간고사로 인하여 휴간합니다
다음 제1578호는 11월 3일에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



사령 <명> 수습기자

권윤지(정치외교학 2014)
박기운(경영학 2014)
방누리(식품영양학 2014)
이시은(컴퓨터 공학 2011)

이예찬(중국어학 2014)
위자현(스페인어학 2014)
장미영(언론정보학 2014)
조재신(한국어학 2011)